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brary Use Experience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임 성 관 (Seong-Kwan Lim)*

목 차

- | | |
|-----------|------------------------|
| 1. 서론 | 4.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의 설계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 포용적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도출해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6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도서관 이용의 시작과 맥락, 공간 경험, 정보 이용 경험, 사람과의 관계 경험, 감정과 의미, 삶과의 연결, 종합적 의미 영역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고, 수집된 내러티브 자료를 반복적 비교와 해석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90개의 개념, 58개의 범주, 3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학습과 자기 성장 지원 강화, 정서적·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brary use experience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and to propose inclusive, user-centered library service strategies. To achieve this aim, six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ir overall perceptions of libraries, the initiation and context of library use, spatial experiences, information utilization, interactions with others, emotions and meanings, connections to daily life, and comprehensive significance. The collected narrative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through iterative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As a result, a total of 90 concepts, 58 categories, and 34 them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strategies are suggested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de tailored programs and participation support, promote social interaction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strengthen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reate library environments that function as emotional and social safety nets.

키워드: 발달장애인,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braries, Experience of Use, Library Services,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kglimpro@kyonggi.ac.kr / ISNI 0000 0004 6363 6794)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365-385,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36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모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반 시설로 기능해 왔다. 최근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제공의 공간을 넘어, 다양한 이용자가 머물고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포용적 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핵심 가치로서 형평성과 접근성이 강조되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9).

장애인은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으로, 정보 접근과 이용 과정에서 물리적·제도적·사회적 장벽을 경험한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이로 인해 정보 탐색, 공간 이용, 타인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복합적인 제약을 겪는다(오혜경, 2005).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단순히 이용의 어려움으로 환원되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이라는 공공 공간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의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United Nations(이하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 참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며, 공공 문화기관이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UN,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은 발달장애인에게 정보 이용의 장소인 동시에,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적 사회 활동을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Shakespeare, 2014).

그럼에도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은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이정은(2022)은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서비스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서비스 실행 과정과 개선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정은과 박현옥(2020)은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김유리 외(2020)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 인식과 지원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나 보호자 관점에서의 요구 분석과 운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상호작용, 공간 경험과 같은 체험적 의미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은 단순한 정보 획득 행위를 넘어, 일상생활의 구성 요소이자 사회적 참여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 요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료 제공 방식, 프로그램 구성, 사서와의 소통 방식 등 실천적 차원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용 경험에 대한 탐구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사회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이라는 보다 넓은 사회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경험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

려움, 이를 완화하거나 촉진하는 환경적·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를 질적 연구 접근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환경적·사회적 조건은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사서 및 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정보 접근 방식 등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요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의 의미 구조를 해석하고, 이러한 경험이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에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2차적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경험을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고 해석하는 의미의 맥락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 자료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텍스트로 간주하고,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의미 단위 중심의 개방 코딩을 실시하여 초기 개념을 생성하였고, 유사한 개념 간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범주를 형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범주 간 관계를 분석하여 상위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구조

화된 틀에 한정하기보다는, 경험 속에 내재된 의미와 맥락을 해석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2.1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발달 등에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제한이 나타나며, 발달 초기부터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장애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주요 유형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언어·학습·운동발달 지연 등이 포함되며, 개인별로 정도와 양상이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정보 이해와 처리, 사회적 상호작용, 일상생활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령 제1149호)상 정의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와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공공 서비스 이용을 논할 때는 이들이 직면하는 제약과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환경적·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2.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 환경

도서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접근권과 포용적 서비스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물리적·디지털 접근성, 보조 기술 활용, 직원 교육 및 포용적 운영 정책을 포함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IFLA는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IFLA, 2019),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보 접근권 보장 원칙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UN, 2006).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 역시 Library Bill of Rights 해석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장애인용 자료 및 보조 기술 제공, 직원 교육과 정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다(ALA, 2019). 또한 ALA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자자료와 웹사이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제시하여, 현대 도서관 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ALA, 2021).

한국도서관협회는 국내 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 왔다. 협회 산하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모두를 위한 도서관』과 같은 자료를 발간하는 등 포용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천적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 2019).

한편,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공공 서비스 이용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도서관 이용 경

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Jaeger(2012)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연구를 통해, 정보 환경에서의 접근성은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인지적 접근성과 정보 설계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 계층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을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Lazar와 Jaeger(2015)는 장애인의 공공 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정보 접근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 인터페이스 이해의 어려움, 그리고 지원 인력의 개입 정도가 서비스 이용 경험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특히 정보 환경의 설계가 장애인의 자율적 이용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구조, 환경 설계, 인지적 부담, 사회적 지원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법령과 지침에서 제시하는 포괄적 접근성 기준과 서비스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도서관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제적 지침과 권고는,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탐구하고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2.3 선행 연구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발달장

애인에 관한 연구라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거나, 공공도서관에서의 서비스 운영 경험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선행 연구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정은(2022)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도서관에서의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3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8명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 서비스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간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의 실행 전략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용자 만족과 긍정적 반응, 그리고 주변인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향후 더 나은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 함양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정책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정은과 박현옥(2020)은 발달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령전기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

의 부모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대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2/3 정도는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적자원과 인식 개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를 보였고, 도서관에서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유리 외(2020)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지원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4명과 그 가족 14명을 연구 참여자(총 18명)로 선정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장벽, 심리적 장벽, 도서와 프로그램 확충, 공간 및 환경 개선, 통합과 공유의 문화 조성이라는 5개의 대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Cerdan Chiscano(2021)는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20개 도서관과 20명의 장애 학생들이 참여한 Inclusive Library라는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 학생을 도서관 경험 설계 과정에 참여시킬 때 이용자 경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자원 배분이 장애 학생들의 도서관 경험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임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관리자들이 장애 학생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Conner와 Plocharczyk(2019)는 Next Chapter Book Club(NCBC) 모델을 기반으로 학술도서관에서 운영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북클럽 데이터를 전국 30개 공공도서관 북클럽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북클럽은 도서관이 저비용으로 지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도서관의 다양성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 이용자 집단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운영,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사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였고, 방법론적으로는 심층 면담, 설문 조사, 프로그램 참여 데이터 분석, 협력 프로젝트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질적·양적 접근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보호자 관점에서의 요구 분석과 운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관적 이용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용 과정에서의 감정, 상호작용, 공간 경험과 같은 체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반면,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서

이용 경험 그 자체를 주관적·현상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연구들이 서비스 제공자나 보호자 관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3. 연구의 설계

연구 설계의 구체적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인 발달장애인 6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S시 S구 S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면서 심층적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총 6명으로 남성이 3명, 여성이 3명, 최저 연령은 22세, 최고 연령은 42세, 평균 연령은 30.8세이다. 또한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3급이 5명, 심하지 않아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1명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성명	성별	나이	장애 유형 및 등급
1	이**	남성	32	지적장애 3급
2	양**		28	자폐스펙트럼장애
3	조**		36	지적장애 3급
4	민**	여성	42	지적장애 3급
5	오**		25	지적장애 3급
6	전**		22	지적장애 3급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닌, 도서관 이용 경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미 구조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장애 유형 및 등급 정보는 분석 과정에서 비교 변수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경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 정보로 활용되었다.

3.2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면담 질문은 참여자의 도서관 이용 경험 전반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해 수준과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하여 질문의 표현과 진행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질적 면담에서 참여자의 언어적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응답의 자연성과 자료의 풍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Brinkmann & Kvale, 2015).

면담은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S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2026년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개인별 30분씩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면담 구성은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의 집중 지속시간과 피로도를 고려하여 자료 수집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계 방식이며, 짧은 단위의 개별 면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자료의 심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된다(Yin, 2018).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총 170분), 이후 전사하여(총 A4 49페이지) 분석에 활용하였다. 충분한 전사 자

료의 확보는 개별 진술의 맥락성과 반복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게 하며,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풍부성과 해석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Creswell, 2013).

면담 질문은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 연구를 근거로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을 면담을 통해 분석한 이정은(2022)과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 및 요구를 파악한 이정은과 박현옥(2020)의 연구를 근거로 도서관 이용 과정, 접근성 경험,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된 영역을 포함시켰다. 또한, 오혜경(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감정과 기억, 경험 의미화 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면담 질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총 8개 영역에 15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3.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Strauss와 Corbin(1998)의 질적 분석 절차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자료의 체계적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념화 과정은 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유사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을 중심으로 핵심 의미를 추출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코딩 과정은 자료에 내재된 경험의 의미를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표 2〉 면담 질문 내용

영역	질문	도출 근거 선행 연구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도서관에 대해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먼저 드나요?	오혜경(2005)
	2. 본인에게 도서관은 어떤 곳이라고 느껴지나요?	이정은(2022)
도서관 이용의 시작과 맥락	3. 도서관에는 보통 언제, 어떤 이유로 가게 되나요?	이정은, 박현옥(2020)
	4. 도서관에 가기 전과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오혜경(2005)
공간 경험	5. 도서관 안에서 좋아하는 공간이나 자주 머무는 장소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정은(2022)
	6. 도서관에서 불편하거나 긴장되는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곳인가요?	이정은, 박현옥(2020)
정보 이용 경험	7. 책이나 자료를 찾을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과정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정은, 박현옥(2020)
	8. 자료를 찾거나 이용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정은(2022)
사람과의 관계 경험	9. 사서나 다른 이용자와 이야기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이정은(2022)
	10. 도서관에서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혜경(2005)
감정과 의미	11.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기쁘거나 편안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이정은(2022)
	12. 반대로 힘들거나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정은, 박현옥(2020)
삶과의 연결	13. 도서관 이용이 본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느끼나요?	이정은(2022)
	14.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느끼거나 생각하게 된 점이 있나요?	이정은(2022)
종합적 의미	15. 본인에게 도서관 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나요?	오혜경(2005), 이정은(2022), 이정은, 박현옥(2020)

다음 단계에서는 생성된 초기 코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는 개별 코드 간 관계를 탐색하여 상위 의미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후 범주 간 관계를 다시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연구자의 반복적인 해석과 재검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경험 세계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IPA의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의 원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즉, 개별 진술과 전체 맥락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의미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면담 질문 항목은

분석 단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을 위한 안내적 틀로 활용되었다. 실제 분석은 전사된 전체 면담 자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도출된 개념과 범주, 주제는 이후 결과 제시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영역별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3.4 연구의 신뢰성 확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와 분석에 대한 반복적 검토와 참여자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입견과 해석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성찰(reflexivity) 과정을 연구 전 과정에 적용하였다. 면담 실시 전 연구자는 발달장애인의 도서

관 이용에 대한 기존 경험과 선이해를 연구 노트에 기록하여 자신의 가정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는 질문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질문 문구를 사전 점검하고 수정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코딩과 범주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원자료와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초기 해석과 최종 범주 간 차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선입견이 범주 형성에 개입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통제하였다.

3.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수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참여의 자발성 및 중단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둘째,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설명과 면담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적응적 면담 절차와 보조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적응적 면담 절차'란 면담 참여자의 이해 수준, 의사소통 특성 및 반응 정도에 따라 질문의 표현 방식, 질문 순서, 설명의 깊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면담 방식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인지적·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면담 참여의 부담을 줄이고 응답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적 접근이다. 실제 면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문

장을 단순화하여 재구성하거나 예시를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 속도에 맞추어 면담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 시 질문 순서를 조정하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이해권과 응답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 특정 집단의 경험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참여자의 맥락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경험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되었으나, 소수 사례 중심의 질적 표집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유형, 장애 정도, 연령, 교육 수준 및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다. 둘째, 장애 유형(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및 장애 정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특성에 따른 경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 간 비교보다는 공통된 경험 구조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 간 차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이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의미 구조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 맥락에서 형성된 경험 구조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Strauss와 Corbin (1998)의 질적 분석 절차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자료의 체계적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개념화 과정은 전사된 면담 자료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구분하고, 유사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를 부분적으로 분절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전사본을 하나의 통합된 텍스트로 간주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IPA의 핵심 원리인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에 기반하여, 개별 진술과 전체 경험 맥락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의미를 구성하였다. 즉, 개별 발화는 전체 경험 속에서 재해석되었고, 동시에 전체 경험은 개별 진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확장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후 도출된 개념들은 유사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범주화되었으며, 범주는 다시 상위 의미 구조로 통합되어 각 경험 영역별 주제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전사된 면담 자료를 하나의 통합된 텍스트로 간주하고 의미 단위 중심의 통합 코딩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표 3>~<표 10>은 이러한 통합 분석 결과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 영역별로 재배열하여 제시한 것이며, 분석 과정에서 면담 질문 항목 자체를 분석 단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본문에 제시된 모든 인용문은 면담 참여자별 발화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으로, 표에 제시된 응답 역시 이러한 화자 구분 기준에 따라 정리된 자료이다.

4.1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분석

다음의 <표 3>은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을 '배움이 가능한 공간',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공간', '익숙해질수록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학습과 참여', '사회적 만남', '즐거움과 선택'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도서관 경험이 기능적 이용을 넘어 다층적 의미 구조로 형성됨을 보여준다.

4.2 도서관 이용의 시작과 맥락 분석

다음의 <표 4>는 도서관 이용의 시작과 맥락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은 프로그램 참여, 환경적 제약, 그리고 우연적 경험이라는 세 가지 주요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표 3〉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분석 결과

질문 1. 도서관에 대해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먼저 드나요?		
개념	범주	주제
책을 빌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곳여서 시간 날 때 가면 좋은 곳 같아요.	학습과 기능 중심 인식	배움이 가능한 도서관
뭔가 배우는 곳 같아요.		
우리 집에는 책이 없는데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서 신기해요.	자원 환경에 대한 인식	
가끔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규범적 인식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도서관
공부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같아요.		
자주 가봐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아는 곳이에요.	이용 경험에 기반한 친숙성	익숙해질수록 편해지는 도서관
질문 2. 본인에게 도서관은 어떤 곳이라고 느껴지나요?		
개념	범주	주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갔으니가 뭔가를 배우거나 참여하는 곳이에요.	학습·참여 중심 인식	학습과 참여의 도서관
저는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생님도 만나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는 곳이에요.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사회적 만남이 있는 도서관
책 읽는 거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면 좋는데, 바빠서 잘 못 가요.	즐거움과 선호 공간	즐거움과 선택의 도서관
행복 카페에서 일할 때는 직장이었어요.		
맛집이나 코인 노래방보다는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상대적 접근성·선택	

〈표 4〉 도서관 이용의 시작과 맥락 분석 결과

질문 3. 도서관에는 보통 언제, 어떤 이유로 가게 되나요?		
개념	범주	주제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요.	프로그램 참여 중심	프로그램 중심 도서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있다고 연락을 해주면 신청을 해요, 그래서 뽑히면 가요.		
저도 복지관 프로그램 때문에 갔어요.	과거 직장 관련 방문 접근성 요인	이용 환경이 제한적인 도서관
예전에는 일하러 갔고, 어떨 때는 프로그램 때문에 갔고, 지금은 안 가요.		
평소에는 잘 안 가요, 집에서 멀어요.	우연적/자발적 방문	우연히 경험하는 도서관
지나가다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구경해요.		
질문 4. 도서관에 가기 전과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개념	범주	주제
혼자 가면 심심한데, 누구랑 같이 가면 재밌어요.	사회적 동반에 따른 즐거움	도서관 프로그램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는 즐거움
가기 전에는 정말 귀찮은데,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면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즐거움	
집에서는 할 게 없어서 심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면 재미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혼란감	도서관 경험을 형성하는 환경적 요인
예전에 일했던 곳에 가면 반갑기도 하고, 매니저님이 바뀌어서 어색하기도 해요.	물리적 요인에 따른 불편감	
덥거나 추울 때 가는 건 힘들어요.		

복지관 및 관련 기관의 안내를 통해 계획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반면 물리적 거리, 이동의 어려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는 경험도 나타났으며, 일부는 일상 속 우연한 방문을 통해 도서관을 접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도서관 이용 전후의 경험에서는 참여 전의 부담감과 실제 참여 이후의 긍정적 경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가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이용이 개인의 단순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공 구조,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원, 그리고 우연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4.3 공간 경험 분석

다음의 <표 5>는 공간 경험 분석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 공간을 개인적 관심과 활동에 적합한 공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공간을 단일한 물리적 환경이 아닌,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다층적 경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공간은 개인의 흥미와 활동과 연결되어 긍정적으로 경험되었으며, 다른 공간은 사회적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반면 혼잡도, 소음, 낮은 시선 등 환경적 요소는 공간 경험에서 긴장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시설 구조나 운영 방식과 관련된 요소는 공간 이용 경험의 지속성과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공간 경험이 단순한 물리적 선

<표 5> 공간 경험 분석 결과

질문 5. 도서관 안에서 좋아하는 공간이나 자주 머무는 장소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념	범주	주제
저는 카페가 가장 좋아요.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카페를 제일 좋아해요.	특정 기능 공간 선호	개인적 관심과 활동에 적합한 공간 선호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나,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창가 자리가 좋아요.	자연광/조망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선호	
프로그램실이 좋아요.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 프로그램실만 왔다가 가요. 다른 곳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요.	프로그램/사회적 활동 공간 선호	사회적 상호작용 공간 선호
로비가 좋아요. 문도 자동문이고, 들어오면 우리 집보다 훨씬 넓어서 좋아요.	넓고 편한 공간 선호	
질문 6. 도서관에서 불편하거나 긴장되는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곳인가요?		
개념	범주	주제
사람이 많으면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 있어서 불편해요. 사람들이 적으면 괜찮고, 많으면 불편해요.	사람과 관련된 긴장·불편	사람과 공간에서 느끼는 긴장과 불편
좁은 공간은 조금 답답해요. 계단이 많으면 넘어지거나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공간 및 환경적 불편	
열람실요, 구경하러 들어가 봤는데 전부 조용히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빨리 나왔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었던 적이 있어서, 갈 때마다 먼저 확인해요.	시설·운영 관련 불편	시설 및 운영상의 불편 경험

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활동,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4.4 정보 이용 경험 분석

다음의 <표 6>은 정보 이용 경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의 정보 이용 경험은 지원 기반 탐색, 자율적 탐색, 그리고 이용 제한 경험이 상호 교차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즉 정보 이용은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상황과 지원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서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정보 접근의 용이성과 이해의 확장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 이용 과정에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참여자는 자료 검색

이나 대출·반납 과정에서 부담을 경험하거나 이용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스스로 자료를 선택하거나 탐색하는 경험도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는 자율적 이용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지원과 환경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대적 자율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이용 경험이 개인의 능력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체계, 이용 환경,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4.5 사람과의 관계 경험 분석

다음의 <표 7>은 사람과의 관계 경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내 관계 경

<표 6> 정보 이용 경험 분석 결과

질문 7. 책이나 자료를 찾을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과정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개념	범주	주제
책을 잘 못 찾으면 물어봐야 하는데, 그럴 때 긴장이 돼요. 일단 직원에게 가서 그 책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보다가 재미있을 것 같은 책 골라요. 책이 많은데 그걸 찾는 게 신기해요. 반납하면 다시 제자리에 꽂는 것도 신기하고요.	직원(사서) 도움 중심의 정보 탐색 자율적 탐색과 호기심 중심 경험	도움과 자율성의 균형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책을 찾거나 빌려본 적은 없어요. 책 빌리면 반납하러 가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빌려요.	참여 제한 및 부담감	자료 이용에서 느끼는 부담과 제한
질문 8. 자료를 찾거나 이용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개념	범주	주제
사서 선생님이 같이 책을 찾아주셔서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편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하려니까 방법을 몰라서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다음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설명도 해주니까 내용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사서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자료 이용 도움 동료 지원 경험	지원 기반 자료 이용 경험
같이 간 친구가 대출하는 것, 반납하는 것도 알려줘서 도움이 되었어요. 아직 책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자료 이용 미경험	자료 이용 경험 제한

〈표 7〉 사람과의 관계 경험 분석 결과

질문 9. 사서나 다른 이용자와 이야기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개념	범주	주제
제가 서 있으니 사서 선생님이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본 적 있어요.	사서의 지원적 상호작용 경험	도서관에서의 상호작용 경험
프로그램 선생님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셔서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의사소통 경험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는지,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서관 규칙과의 마찰 경험	
점심으로 빵을 먹으면서 들어갔더니 “다 드시고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사서나 다른 이용자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뭘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는 거라서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제한적이거나 단절된 상호작용 경험	도서관 이용 시 제한된 상호작용 경험
질문 10. 도서관에서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념	범주	주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의지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동행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감	도서관 동반 이용에 따른 안정감
어디에서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함께 있을 때 상호 지원 인식	
혼자 있으면 주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틱톡 같은 영상 봐요. 혼자 있을 때는 심심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냐고 카톡 보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재미있을 때도 있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싫어해요. 도서관은 어차피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니깐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떠들지는 못해요.	혼자 있을 때 개인적 시간 활용과 외로움 도서관 환경에 따른 관계의 제약 인식	도서관 단독 이용 경험과 제약

험은 지원적 상호작용, 규범 기반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 참여의 제한적 경험이 상호 공존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내 인간관계 경험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규범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특히 사서 및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원이 함께 나타나며 긍정적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도서관 이용 규칙이나 이용자 간 암묵적 규범은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혼자 이용하는 경우와 동반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의 경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동반자가 있을 때에는 정서적 안정감과 상호 지원 경험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적 활동 중심의

이용이 이루어지면서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내 관계 경험이 단절된 구조가 아니라, 지원, 규범, 동반자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맥락적 상호작용 구조임을 보여준다.

4.6 감정과 의미 분석

다음의 〈표 8〉은 감정과 의미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은 긍정적 정서 경험과 환경적 제약 경험이 상호 공존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활동 경험, 대인관계 경험은 기쁨, 즐거움,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형성에 기여하였다.

〈표 8〉 감정과 의미 분석 결과

질문 11.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기쁘거나 편안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개념	범주	주제
도서관 행복 카페에서 일할 때 좋았어요. 바쁜 날에는 힘들었는데, 첫 직장이어서 돈도 벌었어요.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경험	도서관에서의 긍정적 경험 형성
지나가다가 도서관 행사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체험했을 때 재미있었어요.		
프로그램 참여할 때 간식 주고, 끝날 때 선생님이 선물도 주셔서 기뻐요.	보상과 성취로 인한 긍정적 정서	
프로그램 참여할 때 ***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희도 복지관에서 잘 못 만나거든요.	지지적 대인관계 경험	
매니저님이 챙겨주셔서 편했어요.		
집에서 멀어서 불편하기는 한데, 좋아하는 프로그램 참여할 때 제일 좋았어요.	환경적 조건에 따른 이용	환경적 조건에 의해 조절된 이용 경험
질문 12. 반대로 힘들거나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개념	범주	주제
프로그램에 가야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서 안 가고 싶었어요.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환경적·물리적 조건으로 인한 이용 부담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 해서 힘들었어요.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끝나면 저녁 8시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셨는데, 못 오시는 날에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해서 힘들었어요.	귀가 시간 부담	
사람들이 많을 때는 복잡해서 안 가고 싶어요.	혼잡한 환경으로 인한 부담	
***님이 계속 방해해서 안 가고 싶었어요.	대인관계로 인한 불편	사회적·활동적 부적합으로 인한 참여 기피
프로그램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냥 안 가고 싶었는데 결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갔어요.	프로그램의 부적합성	

반면 이동 거리, 교통, 날씨, 혼잡 등 물리적·환경적 조건은 이용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적합성 부족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또한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이용 경험이 단일한 정서 상태로 설명될 수 없으며,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공존하는 복합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4.7 삶의 연결 분석

다음의 〈표 9〉는 삶의 연결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은 일상생활 리듬과 정서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는 일정 부담과 피로를 유발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즐거움과 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용은 학습적 흥미와 자기 통제 경험으로 연결되었으며, 반복 참여와 규칙적 활동을 통해 성실성 및 자기 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자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는 발표나 새로운 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적 자신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은 단순한 활동 공간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와 휴식, 그리고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만 이동 거리, 시간 부담, 프로그램의 강도 등은

〈표 9〉 삶의 연결 분석 결과

질문 13. 도서관 이용이 본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느끼나요?		
개념	범주	주제
도서관에 프로그램 있는 날은 일 끝나고 바로 가야 해서 바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일정/피로 영향	일상생활 리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에 다녀온 날은 조금 피곤해서 집에 가면 밥 먹고 바로 쉬어요.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니까 재미있어요.	활동 참여로 인한 즐거움	경제적·활동적 한계 인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교처럼 숙제 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숙제는 없어서 괜찮아요.		
맛집, 카페, 코인 노래방에 가는 것보다는 재미없지만, 도서관은 공짜로 이용하니가 좋은 점도 있어요.	비교·경제적 가치 인식	경제적·활동적 한계 인식
책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만화책 말고는 안 좋아해서 거의 안 읽어요.	책 읽기 습관 및 제한	
질문 14.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느끼거나 생각하게 된 점이 있나요?		
개념	범주	주제
프로그램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재미있어서 저도 읽어보고 싶었어요.	학습·흥미 경험	도서관 이용을 통한 학습·자기 성장 경험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또 가고 싶었어요.		
원래 오래 앉아 있는 거 힘든데, 잘 참을 수 있었어요.	참여성·규칙적 참여 경험	도서관을 통한 학습·자기 성장 경험
프로그램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일할 때도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 된 거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니깐 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했다고 해서 기분 좋았어요.	사회적 자신감·긍정적 피드백 경험	도서관을 통한 정서적·사회적 활용 가능성 인식
심심하고 갈 곳 없으면 도서관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도서관을 통한 일상 활용 인식	

이용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이용이 일상 생활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구조와 정서,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4.8 종합적 의미 분석

다음의 〈표 10〉은 종합적 의미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도서관은 정서적 경험, 사회적 경험, 학습적 경험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와 사람과의 만남은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학습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의 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공간과 환경에 대한 경험은 초기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인식되었으나, 반복적 이용을 통해 점차 익숙해지면서 적응 경험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동, 날씨, 혼잡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지속적으로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사 및 프로그램 제공자의 역할은 참여 유지와 경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도서관 이용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뿐 아니라 지원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이 발달장애인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사회적·학습적 기능이 통합된 생활 기반 공간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종합적 의미 분석 결과

질문 15. 본인에게 도서관 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나요?		
개념	범주	주제
도서관에 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그런 점에서 비슷한 거 같아요.	정서적·사회적 경험	도서관 참여를 통한 정서적·사회적 경험
책을 읽거나 뭔가 배우는 걸 할 수 있어서 지랑 잘 맞아요.	학습적 경험	학습적 경험
생각보다 건물도 크고 책도 많아서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고 몇 번 가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저는 넓고 밝은 곳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넓고, 환해서 그런 점은 좋았어요.	공간·환경 경험	공간·환경 경험과 적응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동하는 게 힘들고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서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복지사님이 권해주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고 싶어요.	환경적 부담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 그 경험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용적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6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이 도서관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 이용 과정에서의 감정과 상호작용,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세분화하고 개념화하였다. 이후 유사한 의미를 지닌 코드들을 비교·대조하며 범주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 및 제언은 개별 면담 응답의 단순 요약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 경험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의미 구조(접근성,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이용 과정, 정서적 경험 등)를 범주 및 주제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언은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질적 연구에서의 해석적 일반화(analytic generalization)에 근거하여 도출된 실천적 시사점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배움이 가능한 도서관’, ‘익숙해질수록 편해지는 도서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도서관’이라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습과 참여’, ‘사회적 만남’, ‘즐거움과 선택’이라는 의미로 도서관을 인식하여, 프로그램과 활동 중심, 사람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즐거움과 선택성을 모두 반영하는 다층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도서관 이용의 시작과 맥락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 이용의 시점과 이유를 ‘프로그램 중심 도서관’, ‘이용 환경이 제한적인 도서관’, ‘우연히 경험하는 도서관’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경험하였다. 일부 발달장애인은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이용 환경의 제약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경우, 우연히 도서관을 접하면서 경험을 시작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이용이 단순한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환경, 우연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셋째, 공간 경험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 내 공간을 개인적 관심과 활동에 맞춘 공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여 경험하였다. 일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자료를 탐색하는 개인적 공간을 선호한 반면, 프로그램이나 친구와의 활동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공간에서는 상호작용과 참여를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 개인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정보 이용 경험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며 자율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은 책 빌리거나 반납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번거로움을 이유로 참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료 탐색 과정에서 지원과 자율성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다섯째, 사람과의 관계 경험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에서의 상호작용을 지원적 상호작용과 규범 제약, 제한적 대인관계의 두 가지 측면으로 경험하였다. 일부 발달장애인은 사서의 도움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반면, 규칙과 타인의 제약은 긴장과 위축을 유발하였다. 또한 혼자 있을 때와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경험을 구분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 분위기와 이용 규범으로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의 도서관 이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약이 동시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여섯째, 감정과 의미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 활동 참여와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동, 시간, 혼잡 등 환경적 부담과 프로그램 부적합, 대인관계 어려움은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서 환경적 조건이 정서적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일곱째, 삶과의 연결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상 리듬과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학습적 흥미, 자기 통제, 성실함, 사회적 자신감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 자기 인식과 성장을 확인하였고, 도서관이 단순한 프로그램 공간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일상 속에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여덟째, 종합적 의미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프로그램 참여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즐거움과 사회적 경험을 얻었고, 복지사의 권유로 참여 의지를 유지하였다. 또한 책 읽기와 학습 활동을 통해 자기 성장과 학습적 흥미를 경험하고, 넓고 밝은 공간과 건물 구조에 익숙해지며 환경 적합성과 적응 경험을 얻었다. 다만 날씨, 이동, 혼잡 등 환경적 부담은 있었으나, 참여 경험 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정서적, 사회적, 학습적 요소가 통합된 다층적 경험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건물 구조와 이동 경로, 출입 방법을 발달장애인 친화적으로 설계하여 이동과 접근 부담을 최소화하고, 날씨나 혼잡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이용 제약을 고려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안내 표지판, 프로그램 안내, 자료 검색 등에서 직관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독립적 이용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사서나 복지사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참여 과정에서의 긴장과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며 번거로운 절차를 최소화하여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구 또는 동반자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호작용 규범을 명확히 안내하여 긴장과 위축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과 자기 성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책 읽기, 학습 활동, 자기 주도적 탐색 등을 통해 학습적 흥미와 자기 통제, 성실함, 사회적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프로그램 참여 후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 자

기 인식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이 단순한 활동 공간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혼자 방문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긍정적 경험과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질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사회적·학습적 경험과 환경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밝히고,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참여를 고려한 장애인 친화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며, 포용적 도서관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대상과 특정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환경을 포함한 장기적·비교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와 이용 환경 개선이 발달장애인의 자기 성장,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질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장애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장애인도서관 (2019).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71479-000006-01).
- 김유리, 표윤희, 이종민 (2020).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447-472.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1.447>
- 오혜경 (2005).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 87-120.
- 이정은 (2022). 공공도서관 사서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 경험 탐색. 학습장애연구, 19(1), 81-109. <http://dx.doi.org/10.47635/KJLD.2022.19.1.81>
- 이정은, 박현욱 (2020).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과 관련 요구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20(2), 1-28. <http://dx.doi.org/10.21214/kecse.2020.20.2.1>
-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 한국도서관협회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 (2019). 모두를 위한 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9).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 interpretation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1). Accessibility resources & management considerations. Available: <https://www.ala.org/accessibility/management>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rinkmann, S. & Kvale, S. (2015). Doing Interviews. London: Sage Publications.
- Cerdan Chiscano, M. (2021). Giving a voic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design library experiences: an ethnographic study. Societies, 11(2), 61. <http://dx.doi.org/10.3390/soc11020061>
- Conner, M. & Plocharczyk, L. (2019). Back to the future: library book clubs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Diversity, & Inclusion, 3(4), 68-77. <http://dx.doi.org/10.33137/ijidi.v3i4.33009>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9). Guidelines for making libraries accessib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vailable: <https://www.ifla.org/g/eals/access-to-libraries-for-persons-with-disabilities-guidelines/>
- Jaeger, P. T. (2012). Disability and the Internet: Confronting a Digital Divid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Lazar, J. & Jaeger, P. T. (2015). Reducing barriers to online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formation Society*, 31(4), 331-336. <https://doi.org/10.1080/01972243.2015.1044565>
- Shakespeare, T. (2014).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evisited*. London: Routledg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United Nations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vailable: https://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nvention/convention_accessible_pdf.pdf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No. 1149.
- Kim, Yu-Ri, Pyo, Yun-Hui, & Lee, Jong-Min (2020). Perceptions and support need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families on library servic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447-472.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1.44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n Narrowing the Digital Divide (2019). *Libraries for All*.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Jueng-Eun & Park, Hyun-Ok (2020). Analysis of the use of public library services and related nee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age group.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2), 1-28. <http://dx.doi.org/10.21214/kecse.2020.20.2.1>
- Lee, Jueng-Eun (2022).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public library librarians who operate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9(1), 81-109. <http://dx.doi.org/10.47635/KJLD.2022.19.1.81>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19).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Library Service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1-1371479-000006-01).
- Oh, Hea-Kyung (2005). A study on the cultural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 87-120.

